

분열의 공동체와 디지털 부족*

김재인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둘러싼 근본 물음이다. 오늘날 '공동체'는 극심한 분열상을 보인다. 원인은 무엇일까? 들뢰즈가 말한 '제어 사회'에서의 '가분자(可分者)'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분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터넷을 서핑할 때 생겨난다. 전근대 공동체는 영토적 인접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근대 공동체는 공통 언어와 대중매체를 통해 하나라는 믿음으로 결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에 진입하면서 탈근대 공동체, 혹은 분열의 공동체가 가시화되었다. 그 중심에 소셜미디어가 있다. 대중매체의 일대다 수직적 발신과 달리 소셜미디어는 다대다로 수평으로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적 인접과 상관없이 전자 기기에 의한 연결과 그에 따른 분열이 생겨난다. 인간은 연결되지만 동시에 분산되고 분열한다. 이렇게 해서 가분자들의 디지털 부족이 형성된다. 개인은 가분자가 되고 공동체는 분열된다. 대체로 이 상황을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진단한다. 하지만 개인이 근대 자본주의의 필요 때문에 형성된 산물이라면, 가분자는 새로운 인간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분열된 가분자를 어떻게 연가해 내느냐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소속감, 가분자, 분열, 소셜미디어, 디지털 부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096142).

1. 머리말: 소속감, 공동체를 둘러싼 근본 물음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둘러싼 근본 물음이다. 이 물음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 나와 더불어 ‘우리’를 이루는 이들은 누구일까? ‘우리’에 속하지 않는 ‘저들’, 이방인은 누구일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즉 소속감과 실제 소속되어 있음은 같은 걸까? ‘우리’라는 것을 구성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공동체란 무엇이며, 누구까지 ‘우리’인가?

이런 물음들은 특히 지금 시점에서 절박하게 다가온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밖으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안으로 3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드러난 극심한 분열상, 밖으로 10월 2일 브라질 대선과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확인된 고착화한 진영 분리 등 선이 굵은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발생한 후로 시간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침공, 전쟁, 분쟁, 내전, 쿠데타, 학살, 총격 등 피를 동반한 분열의 사건들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 나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류가 각성해서 행성적 거버넌스를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재인 2020, 2022). 멸종을 피하려면,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은 더 커지고 낙인찍기가 난무하며 분열은 더 세분되었다. 분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심판했다’는 기사와 ‘아파트값 상승이 기대된다’는 기사가 한 지면에 등장할 정도까지 갔다. 이런 극심한 분열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공동체’라는 개념부터 극한의 분열상을 드러낸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010년에 하르무트 로자와 동료들은 공동체가 운위되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로자 외 2017:12-18).

“사랑의 공동체에서 차량 공동체와 주거 공동체로, 혼인 공동체에서 이웃 공동체를 거쳐 이해관계 공동체와 세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팬들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 나아가 국민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 이러한 느슨한 열거에서 공유되고 있는 구성적 계기는 무엇일까? (...) 단어 영역의 반경은 사회성과 조합에서 출발해 연합, 사교성, 공속성, 결합, 참여, 형제애, 우정, 동지애, 협회, 법인, 공통성을 거쳐 교구, 사회, 그룹, 파벌 혹은 네트워크에 이른다.”

‘공동체’라는 말로 지칭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공동체’ 개념의 변질로 이해할 수만은 없다. 나아가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공동체는 전에 없던 ‘탈전통 공동체’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함께 어울림(음악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라는 주제적 초점, 순전히 파트타임적인 성격, 공동체화의 선별성이다. “공동체”에 대한 요구는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아닌 이들’에 대한 경계 짓기, 함께 속해 있다는 느낌, 공유되는 이해관계, 간주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치 형성, 공통된 상호작용 (시)공간에 대한 접근이라는 다섯 개의 기준으로 환원된다. 이 대상 영역은 현장들, 하위문화, 팬클럽, 인터넷 포럼부터 브랜드 애호가 모임을 거쳐 페스티벌, 카니발 혹은 자율주의 현장들의 혼란의 날(Chaostage)까지 이른다.”(로자 외 2017:59)

이런 관찰은 ‘공동체’라는 용어의 본질, 개념, 사례, 변전 등 이미 모든 점이 교란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¹⁾ 더 큰 문제는 이 연구가

1) 로자와 동료들은 공동체가 ‘논쟁적 개념’이라고 토로하면서, 연구의 한계를 고백한다. “형식적으로 고찰했을 때 이 모든 공동체 형태들에 어떤 역할을 하는 적어도 세 가지 기준이 식별될 수 있다. 1. 예컨대 전통, 기억, 언어, 영토, 재산 혹은 느낌 같은 공통의 선(善). 2. 예컨대 친구 모임, 인류 혹은 공통의 주거 공간 사용자 같은, 구성원의 암시적으로건 명시적으로건 정의된 범위. 3. 개인과 공동체 간의 규범적인 그리고 종종 법적인 관계, 즉 집단의 규칙과 실천의 관점에서 개별자들의 자유와 통합의 정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연구는 **이 지점에서 진정한 연구 공백이 벌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같은 책, 164, 강조는 인용자. 원서

나온 후 10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도 공동체와 관련해 더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분열의 원인에 대해 계산과 이익의 관점에서 답을 찾으려 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익은 쉽게 무너진다. 2022년 한국, 브라질, 미국 선거에서 보이듯,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뿔뿔 뭉치는 일은 다반사다. 이 점에서 1972년에 질 들뢰즈와 펠릭스 과타리가 던진 저 유명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적이다(들뢰즈, 과타리 2014:64-65).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는 아직도, 스피노자가 제기할 줄 알았던 (그리고 라이히가 재발견한) 저 문제이다. <왜 인간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싸우기라도 하는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울까?> 어쩌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빵을 더 조금! 하며 외치는 지경까지 가는 걸까. 라이히의 말처럼, 놀라운 건 어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는 점이 아니라, 굶주리는 자들이 늘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니며 착취당하는 자들이 늘 파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왜 인간들은 몇 세기 전부터 착취와 모욕과 속박을 견디되, 남들을 위해서는 물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바라는 지점까지 간 걸까?”

들뢰즈와 과타리는 ‘욕망’의 관점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안티 오이디푸스』(1972)와 『천 개의 고원』(1980)은 해결의 시도들이며, 여전히 많은 점에서 유효하다.

하지만 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욕망’ 관점에서의 접근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모색해보려 한다. 이 다른 각도는 1990년에 들뢰즈가 제안한 “제어 사회(sociétés de contrôle)”라는 새로운 개념과 관련된다. 이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들뢰즈는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가진 1990년 인터뷰 「제어와 생성」(Deleuze 1990a), 그리고 곧이어 발표한 「제어 사회에 대한 후기」(Deleuze 1990b)²⁾라는 두 편의 글에서, 현대 사회는 푸코가 잘 분석한 바 있는 “규율 사회(sociétés disciplinaires)”를 이어 “제어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들뢰즈의 요약에 따르면, 규율 사회를 특징짓는 주요 개념은 감금, 주형(鑄型, module), 개인(individu)이다. 규율 사회의 대표적 장소는 울타리 쳐진 장소인 감옥, 병원, 공장, 학교, 가정 등이며, 사람들은 한 곳을 떠나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각 장소에서 특정한 형식으로 개인들이 구조되며(죄수, 환자, 노동자, 학생, 아이 등), 그곳을 지배하는 명령어(mot d'ordre)에 의해 규제된다. 한편 제어 사회를 특징짓는 주요 개념은 연속, 변조(變造, modulation), 가분자(可分者, dividuels)³⁾다. 제어 사회에서는 규율 사회에서처럼 하나를 끝내고 다른 하나를 시작하는 대신, 매 순간 연속해서 스스로 변형하는 주형처럼 변조한다(가령,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는 대신 평생교육). 이 새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패스워드(mot de passe)를 통해 승인된 곳을 ‘서핑’할 수 있으므로, 이제 개인은 나눌 수 있는 가분자다. 제어 사회를 가능케 한 기계 유형은 “컴퓨터”다. 들뢰즈 본인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사용한 컴퓨터라는 용어는 훗날 WWW라고 인터넷을 예감케 한다. 제어 사회와 관련한 글이 발표된 1990년이면 오늘

2) 이 글은 1992년에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이라는 제목으로 영역되어 저널 October에 수록되었다. 글의 출간 30주년을 맞이해 온라인 저널 Coils of the Serpent의 특집호가 두 편으로 나뉘어 발행되었다(2020년 5호, 6호).
<https://coilsoftheserpent.org/>

3) 잘 알려졌듯이 dividu, 영어로 individual은 나눈다는 의미(divide)에 부정 접두사(in)가 결합해서 만든 말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리스어 atomos(나눌 수 없는 것)의 번역어이기도 하다. 이를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個人’으로 옮겼다. dividuel, 영어로 dividual은 individual에서 다시 부정 접두사(in)을 떼어 만든 말이다. 원래 의미를 살려 ‘나눌 수 있는 것’, 즉 ‘가분자(可分者)’로 옮겼다. 다른 맥락에서 일본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는 『나라란 무엇인가』(이영미 역, 21세기북스)에서 이 말을 ‘분인(分人)’으로 옮긴다. 히라노의 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미 1982년부터 미니텔(Minitel)이라는 이름의 통신 서비스가 전용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⁴⁾ 들뢰즈는 미니텔에서 제어 사회의 아이디어를 착상했음이 분명하다.

나는 “개인이 ‘가분자’가 되었다”(Deleuze 1990b:244)는 들뢰즈의 진단에 주목한다. 전근대 공동체, 근대 공동체와 다른 현재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건, 나눌 수 있는 개인, 분열하는 개인, 즉 ‘가분자’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들뢰즈가 잘 관찰했듯이, 가분자는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의 본성에서 탄생했다. 아이디어와 패스워드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물적 조건의 변화가 가분자와 분열의 공동체를 낳았다. 가분자들은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수많은 부족으로 헤쳐모이고 있다. 부족마다 디지털 비눗방울에 둘러싸여 자족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비눗방울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 라이프니츠가 말년에 말한 ‘창 없는 모나드’와도 같다.

II. 상상된 공동체

사회심리학자 세리 터클은 공동체가 “물리적 근접성과 공통 관심사, 실질적 영향력과 공동 책임에 의해 구성”된다고 진술하며, 공동체가 붕괴된 현실을 개탄한다(터클 2012:191). 터클이 지칭하는 공동체는 아마

4) 미니텔은 ‘천리안’, ‘하이텔’ 같은 PC통신 서비스였다. 미니텔 전용 단말기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



전근대 공동체와 근대 공동체일 것이다. 먼저 각 공동체의 구성 근거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공동체가 과거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1. 전근대 공동체

주로 땅에 밀착해 형성되었던 전근대 공동체의 근거는 데이비드 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흄은 ‘관계(relation)’에 있어 인접성(contiguity)이 중요하다고 통찰했다. 인간은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가깝게 느낀다.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 느끼는 친밀감은 ‘인간 본성(human nature)’에서 비롯하며, 친밀한 것에 대한 ‘공감(sympathy)’을 통해 ‘편파성(partiality)’을 낳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료(company)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amusement)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같다. 이탈리아의 영국인은 친구다. 중국의 유럽인은 친구다. 만약 우리가 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사랑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로부터만 진행된다. 이런 경우들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소수의 사람에 한정됨으로써 강화된다.”(Hume 2007:310)

요컨대, 인간은 끼리끼리 어울리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는 것보다 더 친밀하다고 느낀다. 인간 본성이 정말 그러한지는 더 캐물어볼 수 있겠지만, 흄이 사용한 정확한 관찰을 통한 ‘실험적 방법(experimental method)’의 결과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근대 공동체

그런데 어째서 내가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일 수 있을까? 베네딕트 앤더슨은 공동체의 형성에서 ‘상상’의 역할에 주목했다. 흔히 오해되어 온 것과 달리, 앤더슨이 ‘상상’을 강조했다고 해서, 공동체를 ‘허구’나 ‘허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사람들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기에 이른 공통의 공간이다. 여기서 ‘상상’은 ‘구성적 역할’을 한다.

“사실 대면 접촉으로 이루어진 원초적인 촌락보다 (어쩌면 이것마저도) 큰 공동체는 전부 상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아니라, 어떠한 스타일로 상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앤더슨 2018:26-27)

앤더슨의 더 중요한 통찰은, 공동체의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통 언어(활자어)의 성립과 대중매체(신문)의 확산’이라는 발견이다. 바로 이것들 덕분에 대면 접촉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공동체들을 상상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반쯤은 우연적이면서도 폭발적이었던 생산과 생산 관계의 체계(자본주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인쇄) 그리고 인간의 언어적 다양성이라는 숙명 간의 상호작용이었다. (...) 활자어들은 세 가지의 구별되는 방식으로 민족의식의 주춧돌을 놓았다. [첫째,] (...)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통일된 장을 창조했다. [둘째,] (...) 인쇄자본주의가 언어에 부여한 고정성은 새로운 것으로서, 주관적 민족 관념에 (...) 고대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이미지를 쌓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 인쇄된 책은 영구적 형태를 간직했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거의 무한한 복제가 가능했다. (...) [셋째,] 권력의 언어를 만들어냈다. (...) 특정한 사투리들이 각각의 활자어의 (...) 최종적 형태를 지배했다.”(같은 책 78-80)

어디까지가 공통의 공간인가? **같은 생각과 생각거리를** 공유하는 곳까지라고 앤더슨은 통찰했다. 일정한 지리 영역 안에서 언어와 관심사가 통일되면서(이는 역사의 한 시기에 다소 우연히 발생했지만, 기왕 발생한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다), ‘상상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특히 민족주의의 구성을 향한 이 흐름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저항운동 속에서 가속했고, 나중에 역으로 유럽에 유입된다.

나는 본 적도 없는 누군가와 ‘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와 그 누군가가 **생각 속에 공통의 것**, 가령 화제, 느낌, 고민, 기쁨, 관심, 바람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함께 느낀다는 믿음**이 결정적이다. 중요한 건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라는 느낌이 생겼다면 ‘우리’다. 따라서 앤더슨이 ‘상상’이란 용어를 쓴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생각 혹은 관념(idea, image)의 형성, 이것이 상상(imagination)의 가장 오래된 뜻이다. 내 머릿속 관념과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 관념이 **같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와 그 누군가는 공동체의 성원이 된다. 흠의 통찰처럼, 반복이 있으면 습관으로 고정된다.

상상이 그저 오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근본 조건이라는 점을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는 이미 잘 파악했다.⁵⁾ 인간은 자신의 ‘몸(corpus, body)’과 바깥의 ‘물체(corpus, body)’가 만나면서 생겨나는 변화, 즉 몸의 ‘변용(affection)’ 때문에 즉각 ‘관념(idea, image)’을 형성한다. 인간은 삶의 이런 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 지성을 통해 이 조건 너머의 진실을 이해할 순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 관념의 발생, 즉 상상

5)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로부터 200결음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상상한다. 오류는 단지 이런 상상에만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우리가 태양의 참된 거리 및 이 상상의 원인을 모른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태양이 우리로부터 지구 지름의 600배 이상 떨어져 있다고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가까이 있다고 상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의 참된 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변용이 우리 몸이 태양에 의해 변용하는 한 태양의 본질을 포함하기에, 우리가 태양이 이처럼 가까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pinoza 1985:473) 『윤리학』 2부 정리35 주석.

바깥에 있는 건 아니다. 상상은 “인간의 삶, 곧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 전체의 **삶의 조건**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삶의 영역 자체를 구성하고 있다**”(진태원 2010:105, 원문강조)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리적 공통성’을 통해 공동체를 정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관념적 공통성**’이다. 앤더슨의 통찰은 이 점에서 빛난다. ‘민족’ 혹은 ‘**민족주의**’는 민족 ‘의식’에 의해, 또 그것에 의해서만, 구성된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고 같은 공동체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임대주택 등을 일반분양 동과 떨어진 곳에 두는 공간적 차별은 함께라는 믿음이 없어서 생겨난 결과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라는 믿음**이 있다면 같은 공동체에 있다. 중국, 미국, 소련 등 방대한 영토의 국민은 모두 한 나라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관건은 ‘소속감’이다.

공동체가 배제를 전제한다고 하지만, 배제는 결과지 동인이 아니다. 앤더슨이 잘 지적했듯이 **대중매체는 결속한다**. 결국 대중매체에 함께 노출되는 사람들까지가 ‘우리’다. 이것이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 콘텐츠를 소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은 얼마간 미국인과 공통의 느낌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소련인이나 동독인보다 미국인과 더 가깝다고 ‘실제로’ 느꼈고, 뉴욕이나 LA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친숙하다고 ‘실제로’ 느꼈다. 또 **언어가 중요**하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매체를 공유하려면 말이 통해야 한다. 같은 언어를 쓴다고 말이 통한다는 법은 없지만, 다른 언어를 써서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대중매체를 소비하면 일단 소속감이 형성된다**. 최근 K컬처가 유행하면서, 가령 ‘아미’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를 가로질러 형성되는 강력한 팬덤 공동체, 그것은 ‘우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좋은 연구 사례라고 보인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분출되는 차별과 배제, 혐오와 분리, 낙인찍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발생할까?

여기서도 역시 지리적 관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만남이 만남의 거의 전부였던 시절, 즉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던 시절에는 ‘거리 두기’가 공동체 내 차별의 원천이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신분과 계층과 직업에 따라 사는 곳과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구획되었다. 요컨대 서로 섞이지 않음으로써, 가까이 있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공동체로 나뉘었다. 하지만 아파트의 사례에서 보았듯 오늘날은 지리적 분리는 결과에 해당한다. 분리의 참된 원인은 다른 데서, 아마 미디어의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Ⅲ. 미디어 인식론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질병 중 하나가, 서양 학자들의 관행에 따라 한국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고대 그리스(희랍)의 사례를 제일 먼저 거론하면서 심지어 그걸 전범(典範)으로 삼기까지 한다는 점이다.⁶⁾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순 시대나 춘추전국시대를 전범으로 소환하기도 한다. 엉뚱하기는 매한가지다.

들뢰즈와 과타리의 접근법 중에 주목할 만한 지점은 존재론을 말할 때 사회 분석을 경유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깊게 논의되는 주제기도 하다. 그 책에 등장하는 ‘사회체(socius)’란 특정 역사적 시기의 ‘존재’다. 사회를 넘어서 있는 ‘존재’란 없다. 사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본성’이 바뀐다. 인간이 얽혀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물질적 짜임, 혹은 마르크스라면 ‘생산 양식’이라고 불렀을 그 무엇, 혹은 들뢰즈와 과타리가 말하는 ‘배치체(agencement)’는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존재는 막연하지 않으며, 인간이 속해 있는 특정 시점의

6) 대표적으로 하이데거가 있다. 지금 하이데거를 논하려는 건 아니니, 생략한다.

전체 사회가 곧 존재다.

이런 관점에 서면, 초역사적 존재를 운위하는 건 불가능하며, 항상 역사적 존재만 고려할 수 있다. 가령 현재의 윤리학·정치학은 고대 그리스나 요순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역사·사회 조건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걸 생략한 채, 저 먼 과거에서 모델을 끌어오는 건 학적 태만이다. 과거와 현재의 ‘다름’을 포착하지 못하면, 과거는 전범으로서 늘 현재를 압도하기 마련이고, 현재는 변화의 동력을 상실한다. 요컨대, 이상 상태인 과거와 같지 않은 현재가 문제라는 지적으로 끝나고 만다. 저 상투적인 ‘~를 회복하자’는 결론 말이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행동 유형을 몇 개로 구분했건⁷⁾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가 파악한 ‘당시 세계’에서 그 구분은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왜 지금 중요한지, 우리 삶의 조건에서도, 지금도 타당한지 부터 입증해야 한다. 분류란 그 자체가 학적 활동이며, 남의 분류를 검토하지 않고 전제하면 곤란하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참고하는 건 잘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현대의 인간 행동 유형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적절할지 오늘날 사회 시스템 속에서 도출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헛돌고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교통, 각종 도구와 기계장치, 보건의료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도시 인프라 등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치 제도, 환경, 경제 층위에서 인간 행동 유형은 어떻게 세분될 수 있을까? 아니 행동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인식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런 수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 17~8세기 서양에서는 ‘인식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다. 흔히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출발한 ‘이성론’ 전통과 흄을 중심으로 완성된 ‘경험론’ 전통, 그리고 감히 이 두 전통을 ‘종합’했다고 우긴 칸트에 이

7) βίος θεωρητικός(이론적 삶) 대 βίος πρακτικός(실천적 삶), 혹은 *vita contemplativa* (명상적 삶) 대 *vita activa*(활동적 삶). 나아가 후자를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분한 아렌트의 논의도 있다.

르는 잘 알려진 논쟁이 그것이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자연과학이 알려준 지식이 얼마나 진실인가다. 만일 오류가 생긴다면 어떤 이유와 경로로 그런지, 참인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에 유의해야 할지,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다. 이런 논의를 역사적 사료 수준에서 살피는 게 아니라면, 오늘날 인식론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까? 뇌과학의 발전은 저 논쟁의 많은 부분을 떠맡게 된 건 아닐까? 미디어 환경의 변화, 특히 디지털 모바일은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았을까? 오늘날 인식론은 여전히 유효할까?

2023년에 접어든 시점에서, 현대인은 여러 겹의 비눗방울에 둘러싸인 채 간헐 살아간다. 나름의 작은 부족 안에서만 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비눗방울을 처음 언급한 건 자칭 칸트 인식론을 계승한 에스토니아 생물학자 야콥 폰 워스퀼(Jakob von Uexküll, 1864~1944)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의 둘레세계 산책: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책』(1934)⁸⁾에서 동물의 인식·행동 틀을 ‘둘레세계(Umwelt)’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표현했다. 둘레세계란 이른바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환경(Umgebung)과 달리 생물 종(種)에 특유하게 경험되는 세계를 가리킨다. 이 점에서 나비와 박쥐와 인간은 서로 다른 둘레세계 안에서 산다. 워스퀼은 모든 동물은 각자의 비눗방울 속에서, 종 특유의 인식 틀 안에서 살아간다고 단언한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워스퀼은 동물의 관점에서 인간 인식을 논했다. 말하자면 인간의 타고난 감각(感官, sense organ)에 주목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은 적어도 크게 두 개의 비눗방울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 생태계’인 도시고,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디바이스가 결합해 창출한 ‘소셜미디어’가 다른 하나다.⁹⁾ 우리는 도시라는 자연을 살고 있

8) Uexküll & Kriszat 1956. 이 책의 프랑스어 번역본에서 옮긴 한국어 번역은 워스퀼 2012. 워스퀼 사상 전반에 대해서는 김재인(2008:194-203) 참고.

9) 여기서 소셜미디어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장비를 통해 만나게 해주는 미디어(매체)를 총칭한다.

으며, 소셜미디어라는 감각(sense device)을 통해 인식한다.

미디어(medium)란 매체, 즉 ‘중간에 있는 것’을 뜻하며, 인식과 소통에서 **매개** 지점에 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건 ‘일대다’의 일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매체**(mass media)’다. 대중매체는 발신자가 하나고 수신자가 다수라는 점이 특징이다. 대중매체의 시작은, 앤더슨의 지적처럼, 신문이다. 그리고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확산했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인터넷¹⁰⁾은 ‘다대다’의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뉴미디어**’라는 용어를 낳았지만, 결국 스마트폰 같은 개인 스마트 디바이스가 등장하며 ‘**소셜미디어**’ 형태로 수렴했다. 소셜미디어는 다수의 발신자와 다수의 수신자가 엮여 있고, 누구라도 콘텐츠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특징인데, 2000년대에 증반에 탄생해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면화되었다.¹¹⁾ 이 점에서 단톡방,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까지도 소셜미디어에 수렴될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지금 시대에 새로운 대표성을 갖는다.¹²⁾

소셜미디어가 현대인의 감각이 되었을 때 ‘인식’이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자기 목소리가 울려 확대

10) 인터넷이 발명된 건 훨씬 전이지만, 대중에 보편화된 건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웹(WWW)을 발명한 1989년, 그리고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 모자이크(Mosaic)가 출시된 1993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11) 가령 ‘아랍의 봄’에서 트위터가 했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12) 일본의 미디어 학자 다이고쿠 다케히코(2022:24-27)는 내가 ‘소셜미디어’라고 부른 용어 대신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써서 유사한 상황을 진술한다. 그에 따르면 다이고쿠는 대중매체의 고유한 구조를 ‘방-송(放-送, Broad-Cast)’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네트워크와 차별화한다. ‘방-송’의 특징은 ① 정보의 채집에서 일극 중심의 통일성, ② 가공에 있어서 일원적 관리, ③ 배포에 있어서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일제 송신으로 요약된다. 방-송은 원뿔 모양이며, 꼭짓점에서 밑면을 향해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운동을 한다. 반면 네트워크는 ① 동등한 개인이 정보 프로그램을 매개로 연쇄적으로 접속해 나가는 수평적인 유형의 소통, ② 무제한적 연쇄와 접속에서 생기는 늘 동적인 생성의 모습, ③ 전체를 엮는 ‘일극’이 없는 무중심적 혹은 다중심적 소통으로 요약된다. 다이고쿠의 통찰은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미디어(매체)’의 측면에 주목해서 ‘네트워크’라는 용어보다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본다.

재생산된 것을 다시 듣는 ‘동굴 효과(echo room)’,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든 ‘위조뉴스(fake news)’, 민주주의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포퓰리즘’, 허위 정보의 확산으로 피해를 낚는 ‘인포데믹(infodemic)’ 등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이 다 이와 관련된다.¹³⁾

요점을 말하면, 21세기에 ‘인식론’은 17~8세기 철학 혹은 20세기 영어권 분석철학이 다루었던 인식론과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철학 활동이 바뀌어야 한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학문은 새롭게 응수해야 한다. 텍스트만 놓고 인문학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텍스트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고전 텍스트는 당대와의 대결 속에서 갱신되고 탄생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IV. 소셜미디어 전성시대

‘미디어와 지식’, 혹은 ‘미디어와 인식’이라는 주제가 왜 심각하고 중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지식’이 대부분 미디어를 거쳐 들어오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까지는 ‘대중매체’를 경유했다. 소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대중매체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대중매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례’해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강도에 비례해서 보도한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말처럼.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대중매체는 사건의 객관적 중요성이 아니라 더 많은 소비 가능성에 따라 뉴스거리를 ‘생산’한다. 이 문제를 결정했던 건 기자 혹은 더 정확히는 편집자(데스크)였다. 피에르 부르디외가 『텔레비전에 대하여』(1996)에서 잘 지적했던 것처럼, 기자에게 잘

13) 이에 대한 논의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에, 다른 연구과제로 미룬다.

보이지 않으면 대중매체에 등장하지 못한다(부르디외 1998:21).

“버클리는 “존재하는 것, 그것은 지각(知覺)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우리 철학자들(그리고 작가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지각되는 것이다. 요컨대 존재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기자들에게 ‘잘 보임(이것은 타협과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내포함)’을 뜻한다.”

더 나아가, 출연하는 인물뿐 아니라 소개되는 소식도 마찬가지로 ‘잘 보임’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 모든 ‘등장’을 관통하는 것이 ‘광고’ 자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갖는 인식의 왜곡이 일어난다. 뉴스를 보면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며, 이는 세상이 더 혼탁해지고 나빠졌다는 인식을 낳는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럴까? 즉답하긴 어렵지만, 뉴스를 통해서 ‘실상’이 어떠한지 알 길이 없다는 게 진실이다. 가끔 ‘팩트체크’나 ‘탐사보도’가 생산된다 해도, 곧 묻히고 만다. 대중매체는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저 신들의 계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얼마 간은 대중매체의 확산을 초래했다. 소비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경쟁에 수많은 대중매체가 뛰어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사정은 급변했다. 바로 소셜미디어의 등장이다. 지금 대중매체는 ‘다른 대중매체’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경쟁한다. 요컨대 대중매체를 직접 소비하는 대중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매체를 소비하는 대중이 훨씬 많다.

대중매체도 소셜미디어로 재편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포털의 뉴스 소비가 선별 구독 형태로 바뀌고 있고¹⁴⁾ 구독형 심층 뉴스 서비스도 늘고 있는데, 이 경향은 곧 소비자가 구독하지

14) 가령 네이버는 원치 않는 언론사를 배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선택한 언론사는 뉴스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다.

않는 언론은 도태되고 말리라는 전망을 낳는다. 이미 기자 개인을 구독하는 일이 확산하고 있으며, 언론사보다 기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사실, 기자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기사 내용이 그 기자가 작성해서 송고한 언론사나 포털에서 볼 수 있는 기사보다 자세하고 풍부하다. 세계 현지에 거주하며 현지의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번역 소개하는 일도 이미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특파원’ 개념은 사라졌다.

소셜미디어가 대중매체를 대신하거나 포섭하는 상황이 심화하면, 생겨날 현상은 뻔하다. 결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전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몇몇이 모여 소셜미디어 안에서 ‘큐레이션’ 미디어를 만들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전문 포털이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구독 형태(팔로우)로 재편되어, 구독과 취소가 거듭되면서 ‘맞춤형’ 콘텐츠로 수렴한다. 징조뿐 아니라 이미 서비스 형태로 실행되는 소셜미디어 구독이 존재한다. 유료 서비스도 확산하고 있다. 엉터리 뉴스의 범람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킨다면 일정한 비용 지출은 뉴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굳게 믿는다. 조만간 소셜미디어 구독 서비스 경쟁의 춘추전국시대가 올 것이다.

전에는 대중매체 편집자에게 잘 보여야 사람이건 소식이건 출연할 수 있었지만, 구독 매체에서는 독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 이로 인해 자극적인 소식이 증폭되고 있기도 하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2021)에 등장하는 캐릭터 ‘화살촉’이 이 현상을 잘 보여준다.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지옥을 더 지옥으로 만드는 존재.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지식과 소식은 기존 대중매체를 거의 삼켜버렸다. 포털 뉴스마저도 소셜미디어가 삼켜버린 지 오래다.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미디어의 이데아로 자리 잡았다.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를 점령했다. 가히 소셜미디어 전성시대다. 또한, 앞서 열거했던 각종 분열의 원인이 바로 소셜미디어임은 분명하다. 앞에서 로자와 동료들의

연구가 갖는 시대적 한계는 이런 현상 속에서 확인된다. 지난 10년 동안 공동체는 더 분열되었다.

V. 디지털 부족

스피노자는 몸이 물체와 만날 때 동시에 관념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간파했다.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관념이 상상이다. 하지만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는 상상이 다른 식으로도 작동한다. 즉, 17세기라면 몸에 직접 일어나는 변화가 주도적이었다면, 21세기에는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관념의 변화가 얼마간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해야 한다. 오프라인 물리 세계와의 만남이 생략된 채, 주로 온라인 세계 혹은 컴퓨터 세계가 경험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상상의 발생 방식이 바뀌었다.

최근 조사(정부만 외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개인 컴퓨터를 통해 세상을 만나는 시간은 최근 10년 동안만 보더라도 대폭 늘어났다.¹⁵⁾ 인터넷 평균 이용 시간은 약 37%, 35시간 이상 이용자의 이용 시간은 95% 증가했다. 2010년에는 모바일 이용 시간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간의 변화상을 짐작케 한다. 이들 조사에서는 인터넷 이용 시간 위주로 집계했는데, 실제로 게임, 동영상 시청, 문서 작성 등도 물리 세계와의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경험의 물리적 폭은 대폭 감소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사실 통계를

15) 가령 2020년 기준 만 3세 이상 한국인의 1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20.1시간(일 평균 2.87시간)으로 조사되었고, 35시간 이상도 18.6%나 되었으며, 이중 모바일로 이용하는 시간은 11.9시간이었다(정부만 외 2021: 115). 2010년에는 1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4.7시간(일 평균 2.1시간), 35시간 이상이 6.1%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셰리 터클은 이미 2010년 저서에서 인터넷 시대의 연결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터클의 분석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몇 핵심을 언급한다. 터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짓는다(We shape our buildings and then they shape us).”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든다. 그러므로 모든 테크놀로지에 대해 우리는 질문해야만 한다. ‘우리의 인간적 목적에 부합하는가?’”(셔클 2012:57) 터클이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의해 변한 ‘연결’이다.

우선 주목할 것은 오늘날 연결 상태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서로의 거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휴대하고 다니는 “의사소통 기술의 거리”에 좌우된다(같은 곳). 그 안에서, 가령 10대에게 “계임과 가상 세계와 소셜 네트워킹”은 “정체성을 만들어내 투사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자아를 구축하고 편집 및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같은 책 98, 150). 또한 문자와 쪽지와 이메일에서도 “사용자가 보여주는 것만큼 숨기”고 “원하는 만큼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가능하다(같은 책 143). 또한 스크린 뒤에서 멀티태스킹을 통해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않더라도 소통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일상적으로 “평행한 삶들을 스크린 상에 늘 여러 개의 창으로 띄워 놓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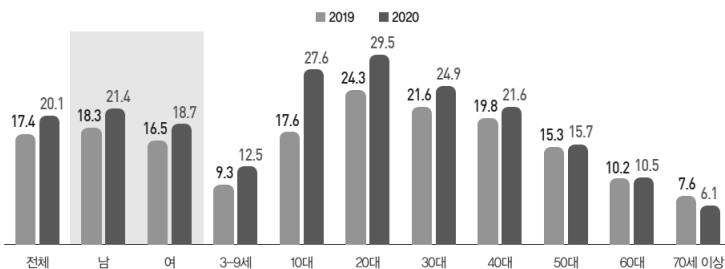


그림 2-24) 성·연령별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시간,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기준)

(같은 책 121)

연결을 약속했던 컴퓨터는 이제 인간을 “킬러 앱(killer app)”으로 만들어 설 틈 없게 만든 것 같다(같은 책 453). 그래서 터클은 연결과 유대가 배신당했다고 단언한다(같은 책 454-455).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형성하는 유대는 결국 계속시키는 유대가 아니다. 정신을 팔게 만드는 유대다. 우리는 가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조깅을 하면서, 운전하는 동안에, 공원에서 자녀의 그네를 밀어 주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다. 서로의 생활을 침범하길 원치 않으므로, 끊임없이 침범은 하되 ‘실시간’으로 침범하진 않는다. (...) 연결성을 서로 가까워지는 수단이라 옹호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게서 효과적으로 모습을 감춘다.”

터클은 인터넷과 네트워크에 얽힌 문제가 “무시하기엔 너무 신경 거슬리는 수준”이 되었다면서, 테크놀로지를 “거부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역설한다(같은 책 477). 기술을 인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앞서 인용한 처칠의 말을 충실하게 밀고 가자면, 인간이 기술을 제어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지어진 것이 아닌지 물어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현대인을 “디지털 유인원(the digital ape)”이라고 규정한 컴퓨터 과학자 나이절 새드볼트와 이론 경제학자 로저 햄프슨의 해석이 더 현실적이다. 이들은 “뇌와 협력해 뇌를 더 효과적으로 가동하는 사회 제도와 물리적 실체”로서 “지식을 전하고 보존하기 위해 조직화된 사고 시스템과 기술”인 ‘지속 가능 장치’를 “몸 밖에 의식적으로” 만들었다고 본다(새드볼트, 햄프슨 2019:22). 이들은 ‘도구’에 대해서도 “최근에 덧붙은 문명의 걸치장”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일부”였으며, 진화 과정에서 “생물학과 기술”이 밀접하게 결합해 있었다고 본다(같은 책 22). 이들은 호주의 행위 예술가 스틸락(Stelarc)의 말을 인용한다(같은 책 131-132).

“몸은 항상 인공적인 것이었다. (...)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에 의해 증강되었다. 테크놀로지는 인류의 성질을 만들고, 기술의 경로는 인류 발전을 추진했다. 나는 몸을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새드볼트와 햄프슨은 인간이 이미 ‘디지털 유인원’으로 진화했고, 이렇게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 출발해서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터클의 다소 의고주의적인 진단과 다른 전망이 그려진다. 하지만 미래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태도는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닐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미 1990년에 들뢰즈는 ‘가분자’가 생겨난 중요한 물적 배경으로 패스워드를 통해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기술 조건에서 이론적으로는 한 개인이 무수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무수한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삶의 방대한 부분이 단말기와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를 서핑하는 아이디로 요약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지 않은 담론과 콘텐츠 장에서 이런 분열상은 극에 달한다. 이제 ‘개인’은 무수한 ‘가분자’로 쪼개져 자신을 모자이크할 수 있게 되었다. 우화 속 까마귀처럼 화려한 깃털들을 자기한테 뽑아서 말이다.

다른 각도에서 이 현상을 보면, 달라진 공동체도 분석할 수 있다. 오늘날 공동체는 가분자들이 이룬 공동체다. 최소한 근대 공동체까지만 해도 구성원은 개인, 즉 불가분자(不可分者)였다. 하지만 물리적 장소에 모임으로써 형성된 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공동체 말고, 이제 비물리적 공간에서 가분자의 아이디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 각각을 ‘디지털 부족’이라 부를 만하다. 본래 부족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어떤 점에서는 인간 집단의 보편적 존재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부족은 외집단과 격리된 채 차별과 혐오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공론장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모두가 가분자가 되고, 또 그래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물질 조건에서 분열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 쪼개질 수 없다는 뜻의 근대적 ‘개인’은 비물질적 사회에서 점점 더 추방된다. 디지털 부족의 구성원은 쪼개진 개인, 즉 가분자다. 각자가 사용하는 사이트·앱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떠올려 보라.

VI. 맺음말: 파트타임 페르소나, 혹은 배우는 삶

아이디는 본래 의미의 페르소나(persona)가 되었다. 페르소나는 연기가 속한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파트타임 페르소나로 임하니, 사람도 모자이크지만 공동체도 모자이크다. 겹겹의 디지털 부족뿐이다. 이 상황에서 통합된 자아, 통일된 공동체, 협력과 연대를 기대할 수 있을까?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초연결 사회가 완성되고 스마트 디바이스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분자의 분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마치 한 편의 영화가 끝난 후 완전히 다른 영화가 시작되는 식의 분열이 이어질 것 같다. 아니, 한 편의 영화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영화가 시작되고 또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더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디지털 부족은 완결되지 못하고 매 순간 다시 분열한다. 따라서 분열의 부족이다.

분열의 공동체는 분열된 개인, 즉 가분자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파트타임 페르소나로 임하니, 사람도 모자이크지만 공동체도 모자이크다. 겹겹의 디지털 부족뿐이다. 이 상황에서 통합된 자아, 통일된 공동체, 협력과 연대를 기대할 수 있을까?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초연결 사회가 완성되고 스마트 디바이스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분자의 분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마치 한 편의 영화가 끝난 후 완전히 다른 영화가 시작되는 식의 분열이 이어질 것 같다. 아니, 한 편의 영화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영화가 시작되고 또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더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디지털 부족은 완결되지 못하고 매 순간 다시 분열한다. 따라서 분열의 부족이다.

히라노 게이치로는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단서를 준다. 그는 ‘진정한 나’와 ‘거짓된 나’의 구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구분의 출발점이 ‘개인’이라고 진단한다. “개인으로서 하나의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이상 커뮤니티 간의 대화가 아니고서는 융합할 수 없”지만, 나눌 수 있는 존재인 “분인(分人)에는 융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히라노 2021:216). 히라노는 많은 이들이 분열을 우려하는 지점에서 융합의 희망을 찾고 있다.

이런 점에서 히라노의 분인 개념은 주목할 만하다. 그가 말하는 분인이란 무엇인가?

“분인이란 대인 관계마다 드러나는 다양한 자기를 의미한다. 애인과의 분인, 부모와의 분인, 직장에서의 분인, 취미 동아리의 분인... 그것들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 분인은 상대와의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내부에 형성되어가는 패턴으로서의 인격이다. (...) 한 명의 인간은 여러 분인의 네트워크이며, 거기에 ‘진정한 나’라는 중심 같은 것은 없다. (...) 나라는 인간은 대인 관계에 따라 몇 가지 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됴됨이(개성)는 여러 분인의 구성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 개성이란 절대 유일 불변한 개념이 아니다. 또한 타자의 존재 없이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같은 책 15)

분인은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나’의 부분이며, 한 명의 인간은 여러 분인의 네트워크다. 히라노가 주장하는 분인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고찰들과 결을 달리한다. 그리하여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개인주의’가 아닌 ‘분인주의’ 사상이다.

“개인(individual)은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분할 가능(dividual)하다. (...) 그런데 분인(dividual)은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분할 불가능individual하다. (...) 개인은 인간을 낱낱으로 분리하는 단위이며, 개인주의는 그러한 사상이다. 분인은 인간을 낱낱으로 분리시키지 않는 단위이며, 분인주의는 그러한 사상이다. 분인주의는 개인을 인종이나 국적이라는 보다 큰 단위로 조잡하게 통합하는 것과는 반대로 단위를 작게 만듦으로써 아주 면밀한 유대를 발견하게 해주는 사상이다.”(같은 책 206-207)

과연 ‘분인’과 ‘분인주의’가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히라노는 근대에 탄생해서 일본에 수입된 ‘개인’ 개념의 억압성을 잘 지적했다. 사실 개인은 자유와 인권의 주체로서 형성된 측면도 있지만, 근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원자로서 동원된 측면도 크다. 나아가 인종이나 국가의 구성원으로 삼았던 역사도 진실이다.

사실 히라노의 분인 개념은 상당히 소박하며, 그 자신도 인정하는 바다. 타인 역시도 분인들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전제하지만, 여전히 나와 타인에게는 ‘개인’이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 같다. 현대 사회의 분열상은 훨씬 심각한 듯 보인다.

끝으로 분열 자체를 급진적으로 긍정하는 들뢰즈와 과타리의 입장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자. 이들은 정상적 자아를 자본주의가 빚어낸 산물로 진단하며, 급진적으로 도주하는 ‘분열자’를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분열자는 ‘미친 인간’이기도 하다. 단, 정상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만 그러하다. 정상성 자체가 의문의 대상이 되는 순간, 광기는 긍정성을 회복한다. 우리가 초연결 네트워크에서 분열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분열이 혹 새로운 인간과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는 없을까? 자본의 포획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새어나가는 틈새가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배우는 삶**이다. 중요한 건 필연적으로 파트타임일 수밖에 없는 페르소나를 잘 가꾸가는 일이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다른 파트타임 속에서 다른 페르소나를 연기해야 한다. 이런 연기는 오래전부터 ‘예술’이라 불렸다. 새로운 시대는 모두에게 예술가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원했던 원치 않았든, 개인의 분열과 공동체의 분열은 가속하고 있다. 격리는 진화, 즉 새로운 종의 출현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격리 시간이 길어지면, 각 집단은 다른 종이 된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라는 초유의 환경은 호모 사피엔스를 새로운 종들로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진단 속에서 삶의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삶

의 가치는 또? 더욱이 함께 살아가는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은 많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힘들다. 지금으로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김재인(2008),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에서 워크윌의 위상」, 『철학논구』 36.
- _____ (2020), 『뉴노멀의 철학』, 동아시아.
- _____ (2022), 「공동주의를 향해: 뉴노멀 시대에 형성적 거버넌스를 모색하다」, in 백혜진 외(2022).
- 나이절 새드볼트 · 로저 햄프슨 지음, 김명주 옮김(2019), 『디지털 유인원』, 을유문화사.
- 다이고쿠 다케히코 지음, 최승현 옮김(2022), 『가상사회의 철학』, 산지니.
- 백혜진 외(2022), 『호모 퍼블리쿠스와 PR의 미래』, 한울아카데미.
-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서지원 옮김(2018),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제3판), 도서출판 길.
- 세리 터클 지음, 이은주 옮김(2012), 『외로워지는 사람들』, 청림출판.
- 야콥 폰 워크윌 지음, 정지은 옮김(2012),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책』, 도서출판 비.
- 정부만 외(2021),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진태원(2010), 「변용의 질서와 연관: 스피노자의 상상계 이론」, 『철학논구』 22.
- 질 들뢰즈 · 펠릭스 고티에리 지음, 김재인 옮김(2014),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민음사.
-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현택수 옮김(1998), 『텔레비전에 대하여』, 동문선.
- 하르트무트 로자 · 라스 게르텐바흐 · 헤닝 라옥스 · 다비트 슈트레커, 광노완 · 한상원 옮김(2017),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원서를 참조해 수정했음. Gertenbach, Lars & Laux, Henning & Rosa, Hartmut & Strecker, David (2010), *Theorien der Gemeinschaft: zur*

Einführung, Junius.

히라노 게이치로 지음, 이영미 옮김(2021), 『나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Deleuze, Gilles (1990b), “Contrôl et devenir”, in Deleuze 1990c.

_____ (1990b), “Post-Scriptum sur les sociétés de contrôle”, in Deleuze 1990c.

_____ (1990c), *Pourparlers, 1972-1990*, Minuit.

Hume, David (2007), *A Treatise of Human Nature: Being an Attempt to Introduce the Experimental Method of Reasoning into Moral Subjects, 1739-1740*, ed. David Fate Norton & Mary J. Norton (2007).

Spinoza, Benedictus de (1985),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vol. 1*, ed. & tr. Edwin Curley, Princeton UP.

Uexküll, Jakob von & Kriszat, Georg (1956), *Streifzüge durch die Umwelten von Tieren und Menschen: Ein Bilderbuch unsichtbarer Welten. Bedeutungslehre*, Hamburg: Rowohlt.

온라인 저널 Coils of the Serpent의 특집호(2020년 5호, 6호).

<https://coilsoftheserpent.org/>

❖ ABSTRACT

Divided communities and digital tribes

Kim, Jae-Yin
Kyung Hee University

The fundamental question surrounding the community is where do I feel I belong. Today the ‘community’ is extremely divided, and the cause needs to be ascertaine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ncept of ‘dividual’ in Deleuze’s ‘societies of control’. Dividuals are created when surfing the Internet using IDs and passwords. The pre-modern community was established on territorial contiguity, and the modern community could be unified on the ground based on the belief that people felt one through common language and mass media. However, as we enter today’s hyper-connected network society, a postmodern community or a divided community has become visible. Social media is at the heart of such kind of society. Unlike the one-to-many vertical ways of transmission of mass media, social media connects many-to-many horizontally. In this process, regardless of spatial proximity, connections by electronic devices and subsequent divisions occur. Humans are connected, but at the same time dispersed and divided. In this way, a digital tribe of dividuals is formed. Individuals become dividuals and communities are divided. In general, people are pessimistic about this situation. However, if the individual is a product formed due to the needs of modern capitalism, dividuals also have the possibility of being a starting point for a new human. The

touchstone would be how to play the roles of a dividual.

Key Words : feeling of belonging, dividual, division, social media,
digital tribe

■ 논문투고일 : 2023. 01. 08

■ 심사완료일 : 2023. 02. 05

■ 게재확정일 : 2023. 02. 07

